

2024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 응시정보

응시과목	미술	응시지역	서울	응시횟수	N
임용시험 준비시기	대학원 졸업 후 1년 지나서 준비	합격 준비기간	N년	시험준비 병행여부	직장과 병행

● 합격점수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17]점 / 전공(교육과정) [57]점
최종 합격점수	[161.070]점 (1차 +8.7, 최종컷 +13.8)
가산점	[0]점 (가산점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해 주세요.)

● 합격수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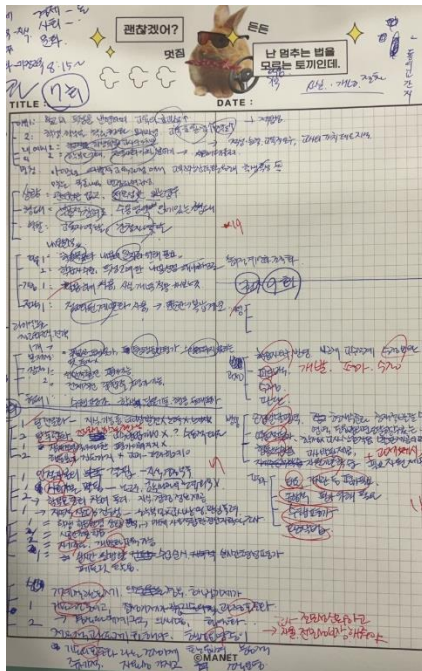
작성 예시를 참고,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꼭 아래의 문항에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합격 수기는 재수 이상이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2023년 교육학(18.33), 전공(52) (서울 컷 +3, 최종 -0.92, 2차에서 탈락) 2024년 교육학(17), 전공(57) (서울 컷 +8, 최종 +13.8, 석차 4등 최종합격) <교육학> 1. 시기별 교직 논술/교육학 학습 방법 1) 1~2월 초, 재수 때는 김현 선생님과 타 학원 선생님 두 분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론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강사별로 강의를 선별하여 들으며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방법은 7, 8월까지 동일합니다. 2) 3~4월 3, 4월 강의를 한 분 거만 들었고, 1, 2월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이틀 안에 듣고 밀리지 않았습니다. 3) 5~6월 이때부터 암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초, 재수 때는 완전한 이해 기반이 아닌 무조건 암기만 했었습니다. (이해한 줄 알았으나 아니더라고요) 재수 이후로 정말 이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떠올려 묻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었 되었던 것 같습니다. 4) 7~8월
--

영역별 모의고사가 진행되므로 영역별로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데 좋습니다. N수생 되고 나서는 영역별로 약한 부분 확인용으로 영역별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틀리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 위주로 이해하고 암기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 9~11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모의고사에서 다뤄주는 문제들이 다수 기출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7,8월 모의고사에서도 기출이 되긴 합니다만 9,10월 문제는 현재 교육학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 모의고사 문제 풀이 예시>

2. 교육학에 관하여 개인적 의견

교육학에서 사철학, 생지상, 심리 등의 부분을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깊은 이해가 되려면 이 세 과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은 미술교육론과 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지상, 심리는 2차때 유용합니다. 생활지도, 학생 심리 상태에 따른 지도방안 등은 1차 교육학 시험과 2차 면접에도 정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N수생활 하면서 기출에 대한 감이 생겼었고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생각해 두면, 그 부분이 학원 모의고사 문제나 실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전공, 교육학 모두). 합격했던 해에는 교육학이 어렵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실제 시험처럼 적는 연습은 5회 이하였고(합격 한 해만) 그 외에는 키워드 위주로 답을 적으면서 다양한 강사의 모의고사를 많이 풀며 예측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스터디 선생님들께 질문하며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강사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중복되어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학운위 같은 경우 초수 때 암기했던 내용이었고, 초수 때 편견 없이 모든 것을 다 외웠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견 없이 겸손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안될 때는, 면접 이론 책을 보면서 리프्रेस시 했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면접책들을 읽으면서 외워졌던 것이 있었는데 올해 교육학 문제의 답으로 활용하여 답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저처럼 1차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2차 면접 책을 보는 것 추천합니다.(재수 이상)

3. 교육학 스터디 관련

저에게 잘 맞았던 스터디는 설명 스터디였습니다. 문답 스터디에서 더 나아가 통째로 한 이론에 대해 줄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이론을 설명하면 그다음 스터디 선생님이 그 이론에 대하여 자신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개념 숙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나 활용방법도 더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삼수 이상부터는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교육학 강사도 초수, 재수 때와 다른 분으로 바꾸

면서 쪽 그분 책을 베이스로 잡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 학원 교육학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추가로 함께 풀면서 강의 듣는 시간보다 개인 공부시간에 투자했습니다. 최대한 책으로 개념을 숙지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초점에 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쓰는 것은 이 모든 단계가 끝났을 때 쓰면서 빠진 부분 없는지 인출 확인용으로 간단하게 키워드로 썼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이론 숙지가 되면 해당 이론의 장점, 단점, 활용방법 등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는 심리와 방법을 연계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게 되면서 적응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일 병행 관련 공부 관련

올인을 2년 하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졌었고 일을 해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강사, 기간제 교사 등을 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시간 확보를 위해 최대 1학기를 넘지 않도록 일을 구하여 병행하였습니다. 올인 하면서 힘드실 땐 일 병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 병행을 통해 수업실연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전공 내용도 직접 가르쳐보면서 더 잘 숙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1시간 일찍 출근하여 교육학 공부를 하는 등 틈틈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근 후에는 평일은 2~3시간 이상 일 병행 구르미 캠 스터디를, 주말엔 8시간 이상 캠 스터디를 진행하며 흐름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평일은 적으면 2시간은 꼭 하였고 주로 5시간은 채웠습니다. 주말은 8시간 이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전공>

1. 시기별 교육과정/전공 학습방법 (전공 57점)

1) 1~2월

전공은 기본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에서 '이런 것을 물어본다고?'라고 생각될 정도로 기본을 많이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1년 내내 기본이론 때 배운 내용을 아주 깊게 이해하는데 힘을 쓰셔야 하며 그 이후에 외워야 합니다. 이해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남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스터디원에게, 혹은 혼잣말로 설명하는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게 가장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터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만 저는 무조건 설명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저희는 중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업실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2) 3~4월

심화 강의부터는 장지연 선생님께서 미교론 강의를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때문에 기본, 심화 모두 들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3) 5~6월

N수 하면서 위상 팀 모의고사는 항상 해마다 빠짐없이 풀었습니다. 위상 팀 모의고사 풀면서 느낀 건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있다 보니 실전 문제가 쉽게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통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본질을 꿰뚫고 풀어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같습니다. 5, 6월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 문제와 기출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이루어져 공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 이해가 안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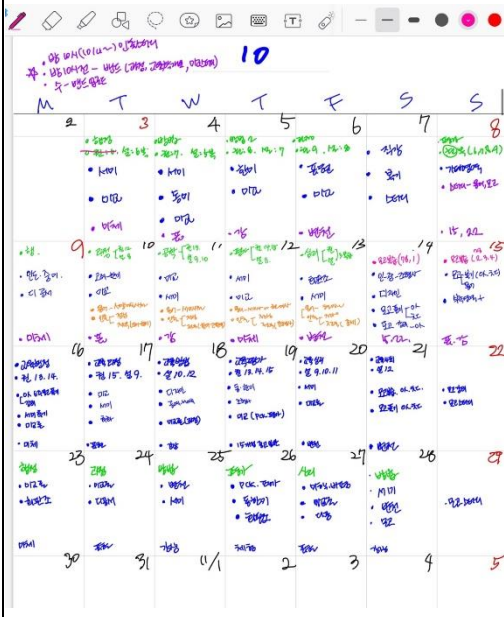
계속 반복해서 풀거나 스터디원과 얘기하며 풀릴 때까지 고민했습니다.

4) 7~8월 (일병행 순공 평균 6시간)

영역별 모의고사도 역시 교육학 영역별 모고처럼 활용했습니다. 파트당 약한 부분 파악용으로 활용하여 틀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기본서에 단권화하였습니다. 틀린 문제, 강조한 문제는 단권화 한 책에 꼭 적어 넣으세요. 이때부터 타 학원 모의고사도 함께 풀면서 강사 별로 겹치는 문제나 강조하는 부분을 기본서에 체크해 두거나 스터디 할 때 한 번 더 인출해 보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3공 0링 금속 틀만 사서 단권화하면 책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진 첨부한 것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5) 9~11월 (순공 평균 12시간)

9~11월 모의고사와 마중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마중물 같은 경우는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가 약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재수 때부터 상위권을 유지했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 성적과 연관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모의고사는 자신의 인출 정도와 중요도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보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영역의 고른 이해와 편식 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상위권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계속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9월부터 올인하면서 관리형 독서실을 통해 순공 12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독서실 가기 전 30분, 퇴실 후 추가로 2시간을 집에서 공부하여 약 13시간을 공부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 11월부터는 집에서 주당 평균 70시간 캠프스터디를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10시간 이상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은 보통 잠을 못 자서 매년 거의 1시간만 자고 시험 치러 갔었지만 합격하던 해에는 5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잤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았고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도 아침에만 드시고 점심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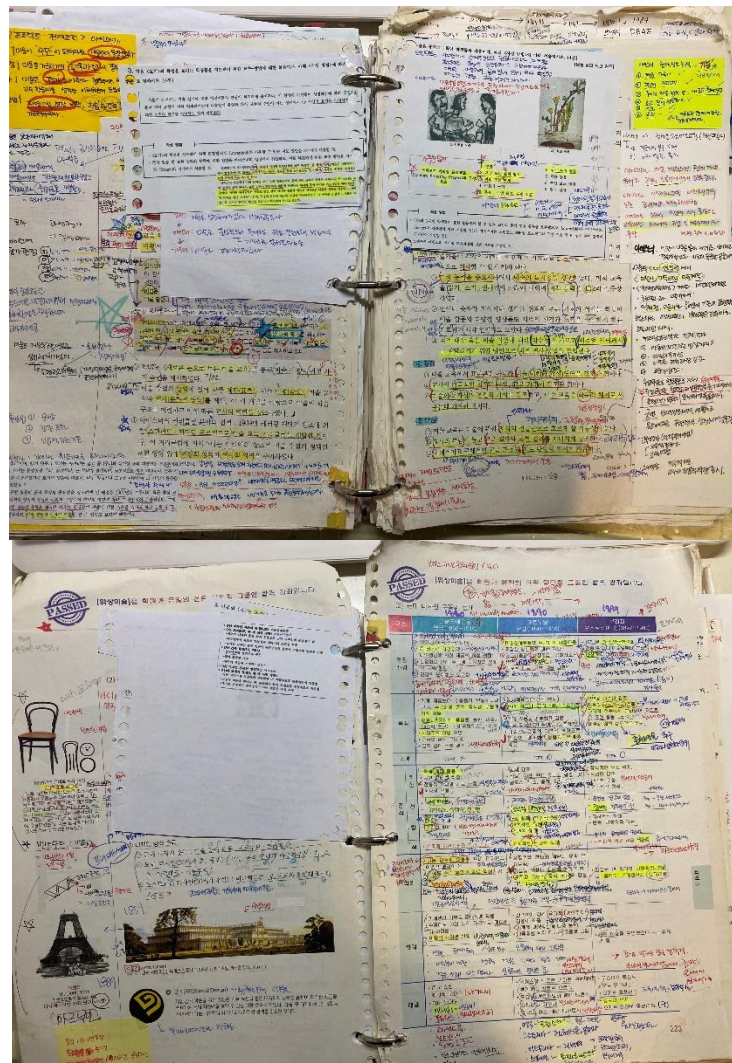


<스터디 플래너 예시>

저는 하루에 많은 과목을 자주 보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N수생이었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물론 플래너에 적은 과목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플래너에 적지 않은 자잘한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어사전 스터디도 했었는데 재수 때 용어 사전 강의를 듣고 스스로 타이핑하여 정리해둔 파일을 수시로 읽고 외웠습니다. 따로 인출하는 스터디는 합격하던 해, 기상 후 15분 정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용어들은 대부분 위상 강의를 통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단어들이 많아 외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단권화 및 3공 바인더 O링 예시>



<기본서+심화책+모의고사 프린트 단권권화 예시>

N수들은 기본서를 바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저는 초수때부터 사용한 위상 기본서에 재수때 새로 나온 심화서를 합쳐놓는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말이 단권화지 그냥 합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위상 기본서도 다시 구매하여 달라진 부분만 참고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워낙 초수때부터 봤던 책에 익숙해져서 책을 바꾸진 않았고 계속 추가하여 보는 식이었습니다. 타 학원 기본서도 모두 구매하여 꼼꼼히 읽고 위상 기본서에 단권화 하거나 타 학원 기본서에 단권화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의고사도 작게 축소 복사하여 기본서에 단권화 하였고 기출 부분은 책에 스티커나 매직 등으로 기출 연도를 표시하거나 문제를 간단히 적어두는 식으로 적었습니다. 필독서는 재수 이후부터 읽기 시작하였고 맥락과 문해력을 높이고자 최대한 자주 읽었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내용은 포스트잇에 요약하여 적고 기본서에 다 붙여 뒀습니다. 11월부터 빠르게 회독할 때 포스트잇과 관련된 부분만 한번 더 빠르게 읽고 암기하였고 나중에는 포스트잇만 보기도 했습니다. (대신 책이 엄청 두꺼워지고 찢어지고...)

3. 자신만의 공부 방법(어려운 문제 대비법, 슬럼프 극복, 체력관리 등 수험생활 전반의 TIP)

<멘탈 관련>

- 유튜브 동기부여 영상 보기 : 동기부여학과, 멘탈훈련소, 이지영쌤, 전효진쌤, 정승제쌤 영상을 많이 보거나 들으면서 멘탈을 부여잡았습니다.
- 매일 확언하기 :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시험 2달 전부터 입으로 매일 몇 번씩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합격한다.' '2023년 12월 28일 1차 합격한다.' '2024년 2월 8일 5등 이내로 최종 합격한다.' 등... (결국 4등으로 합격)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면 됩니다.
- 자신을 믿기 : 작년에 기간제로 일할때 그 해 신규로 들어온 타과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너무 부럽고 도대체 나와 뭐가 다른지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동학년 담임을 하면서 친해졌고 공부 방법에 대해 많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머리에 남는 말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내려고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나중 돼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공부하면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마음속으로 '괜찮아,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보자, 할 수 있어.' 등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필사적으로 긍정적인 생각하기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서 우연히 듣게 된 말인데, 좋은 쪽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뻔하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닌, 정말 조금이라도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하였고 정말 힘든 2차 시험 준비 기간을 저런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4. 합격에 도움이 된 선생님과 강의/교재 활용 후기는?

위상 팀 모의고사를 추천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취지 파악하는 훈련, 문제 안에 있는 힌트를 찾아내는 훈련 등을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는 정말 꼼꼼하게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본문 외에 옆에 작게 쓰여있는 글씨들도 빠짐없이 모두 검색해 보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5. 실패한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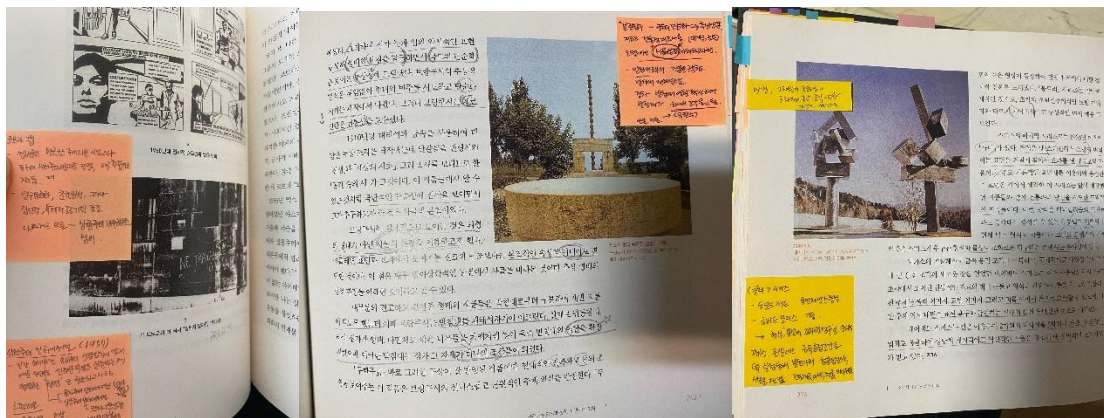
1탈도 소수점, 2차도 소수점 탈락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한 행동은

자기성찰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교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탈락하면 너무 힘들고 공부가 하나도 손에 안 잡힐 것입니다. 그럴땐 꼭 쉬시고 공부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원인 분석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문해력 때문인지, 취지 파악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던 학생이었습니다. 임용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숙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해력도 부족했는데, 이는 기본서를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니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책을 오랫동안 깊게 읽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책을 읽더라도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생기고 나서부터 임용 공부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맥락이 부족한 경우 필독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너무 깊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본서가 필독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찾아서 발췌독 해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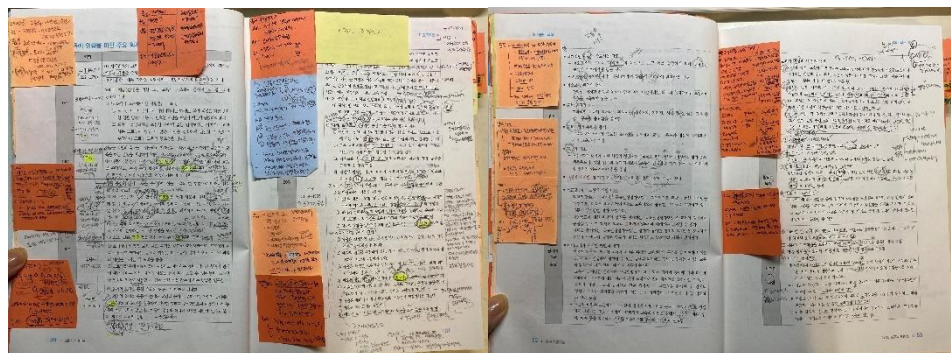
6. 가장 추천하는 공부 방법

1) 포스트잇 요약

합격생에게 배운 공부 방법인데, 필독서나 이론서에 한 페이지당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 놓고 그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습할 때, 그 부분만 다시 읽어도 내용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포스트잇 요약 예시>



<포스트잇 요약 예시2>

2) 선 이해 후 암기

한 문장을 읽어도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고 상상하며 이해하세요. 왜?라는 질문을 항상 생각하시면 이론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암기는 저절로 됩니다. 왜 그 이론의 명칭이 그렇게 불리는지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해하지 말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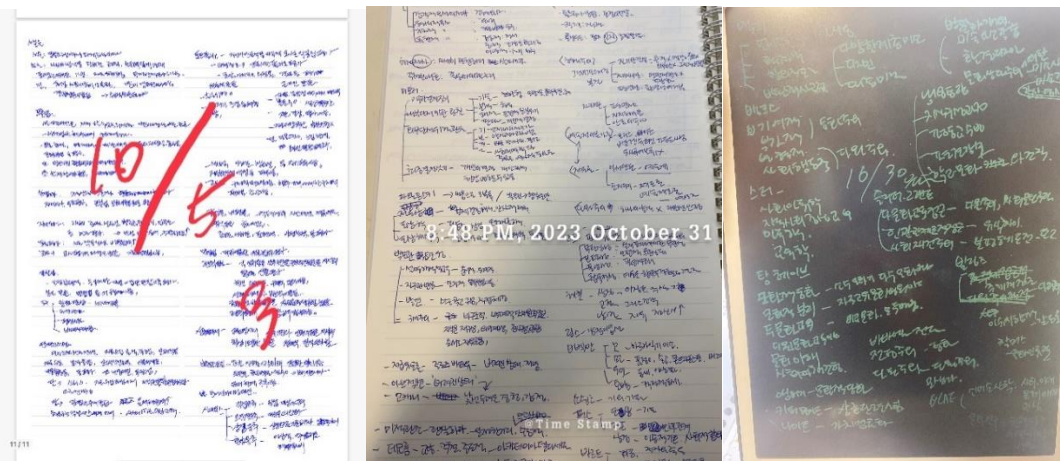
3) 설명하기

꼭 혼자말로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집중도 잘 되고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무조건 스스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설명하기'를 추천합니다. 스터디원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4) 스터디하기

N수 하면서 안 해본 스터디가 없지만 합격하던 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스터디는 점심, 저녁 시간에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 10개정도 밴드에 미리 올리고 전화로 설명하는 스터디였습니다.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30분 정도 했습니다. 15분씩 나누되 10개에 대해 각자 줄줄 말하는 스터디입니다. 되도록 안 보고 다 외워서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오전에 미리 공부해두고 점심때 스터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듣는 선생님은 피드백해 주실 수 있으면 하고 둘 다 모르거나 할 경우 체크해 두고 저녁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지 스터디도 추천합니다. 모두 암기하여 쓰지는 못했고 책을 보면서 목록화 하여 백지쓰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결국 머리에 다 남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터디원이 부정적이거나 힘들어하면 동요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최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와 스터디했던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셨는데 힘들어 하셨던 분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잘 받아들여 힘을 내셨고 모두 1차에 합격했었습니다.(말로 내뱉도록 문장을 만들어 따라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ㅎㅎ)



<백지쓰기 예시(아이패드, 종이 등.. 모두 활용했습니다)>

< 문풀스터디 >

1. 표현중심 교육과정 정당성, 미학, 철학, 경제교육심리배경, 목적, 방법, 내용, 평가, 의의, 한계
 2. 로크신사교육, 프렐링만 기능공교육, 존러스킨 헨리콜 교육 비교
 3. 존러스킨 지각과 창안, 콜의 사우스켄싱턴디자인학교 장식의 원리 3가지
 4. 윌리엄 파울 목적, 방법, 특징
 5. 윌터스미스 배경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의의
 6. 도우 목적 방법 의의 한계
 7. 배우하우스 배경 목적 내용 교육과정 방법 평가 특징 의의 한계
 8. 오와나프로젝트 정당성 정치사회사상배경 목적 내용 방법 평가 특징 의의
- 10월 5일 오전 11:40

1. 에스키스, 에보시, 에튀드, 카르통, 라인, 매스, 서스테인드, 스크리블드라인 제스처 드로잉 개념
 2. 백악, 박막, 황변 현상, 스케일링 원인, 해결방안
 3. 바나타스화, 거울, 왕관, 모래시계, 막기, 해골 상징의미
 4.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자동기술법, 에메이즈말
 5. 차용 페르디 페스티시 브리콜라주 오마주
 6. 석재 분체 분체 언데 이체
 7. 오이와 쏘가리, 원숭이, 석류, 모란, 학, 계2마리와 갈대, 소나무와 학, 까치 소나무 학, 나무 밑 개, 갈대와 기러기,
 8. 인그레이빙, 매조인트, 에칭, 소프트그라운드 에칭, 리프트그라운드 에칭, 에퀴먼트
 9. 송진가루 가열 많이, 적게했을때, 도포량 많거나 적을때, 스릿 바이트 방법 효과
 10. 헤어터 기법
- 53분 전

<문풀 스터디 및 백지쓰기 예시>

5) 환경에 변화 주기

노랑진에도 살아보고 집에서도 해보고 스카, 1인 독방 스카, 등등 환경을 엄청 바꾸면서 지냈 습니다. 워낙 너무 예민한 편이라 집이 가장 편했고 강제성 부여를 위해 구르미 캠 스터디 도 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합격한 해는 노랑진에서 관리형 독서실을 2달간 다녔습니다. 일 병행 후 9월부터 2달간 다녔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몸이 약한 편이라 2달만 다니고 11월은 집에서 했지 만 2달간 너무 만족했고 순 공부 시간과 공부의 질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단기간이라도 집 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2차 관련

자신에 대한 분석을 완벽히 해야 합니다. 말을 잘 하는 편인지, 실기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면접 이론 내용은 숙지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시책은 얼마나 말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효과적인 스터디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1) 실기 (27.67점)

저는 회화 전공이라 실기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실기 과목마다 특성이 존재하 기 때문에 그에 맞게 실기력을 갖춰야 합니다. 홍대 미술학원도 다녀왔고 노랑진에서도 다녀왔 습니다. 홍대 다닐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자 최대한 혼자 다닐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도움이 되긴 했지만 합격권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기는 노랑진 쪽 학원을 추천드 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기 능력을 계속 의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컨디션과 조건에 따라 실 기 능력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시험장에서 어떤 조건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 이, 다양하게, 아플 때도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아플 때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일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 때는 잘 그릴 수 있는지, 왜 못 그 리게 되는지, 어떤 소재가 내게 어려운지... 등 고민하고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이나, 폰으로 자신의 그림에 대한 피드백 내용, 강사가 강조하는 내용 등을 적어두고 자주 보고 다음 시간에 반드시 반영하여 내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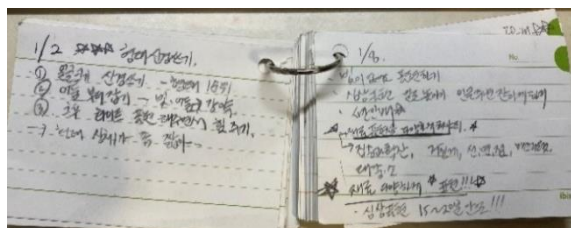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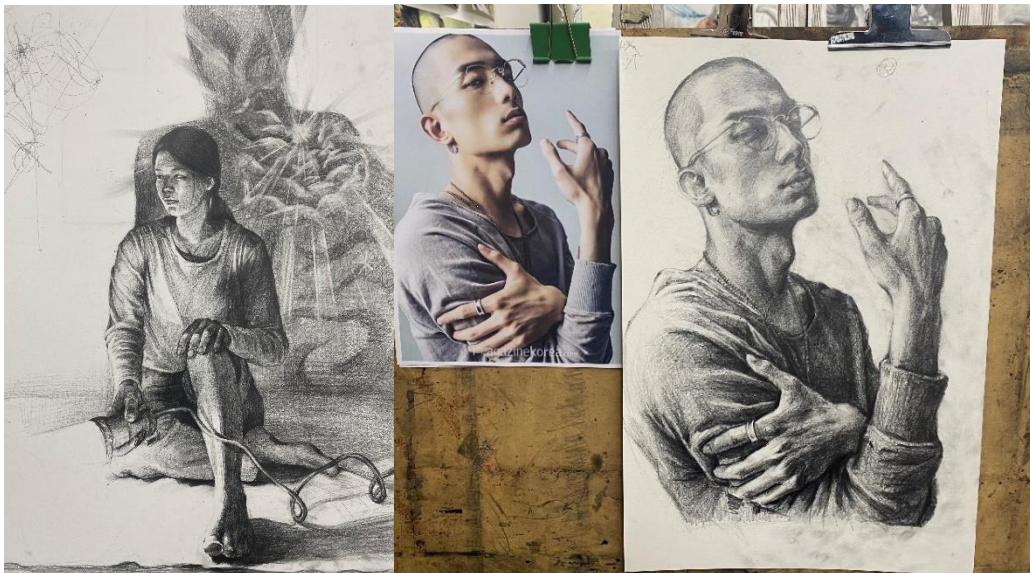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1) 조건, 2) 형태, 3) 완성도입니다. 무조건 조건에 맞게 그리면

서 형태, 비례 모두 신경 쓰시고 완성도 높게 그려야 합니다. 1차 발표 전까지 실기력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실기 시간보다 면접 시간을 더욱 확보하여 공부했습니다. 저는 체력이 많이 약하고 인체 소묘인 경우 그림을 그린 지 4시간 이상이 되면 능형근 통증이 심해져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스를 뿌리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라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1타임씩 주 3~4회로 학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실기 능력과 컨디션에 따라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실기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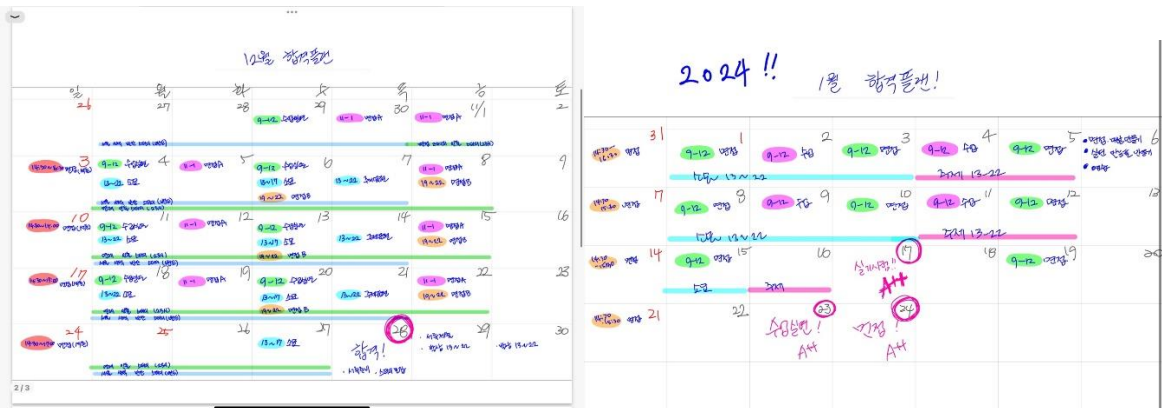
<실기 작품>



- 실기 학원에서도 작은 노트에 매일 피드백 내용을 기록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 면접 관련

면접에 자신 있었으나 점수는 잘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너무 많이 깎여서 그 당시 합격자들과 현직 선생님들 총 10분께 복기 답안을 보내드려 피드백을 자세히 받았었습니다. 결론은 이론 숙지 부족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 파악에 문제가 생겼고 시책 암기도 부족하여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기, 수업실연 준비를 하다 보면 면접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보다 이론을 1차 공부하듯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묻는 바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면접 공부에 시간을 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매일 영상을 찍고 다시 보고 스크립트 만들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면접 이론의 모든 파트별로 자신만의 답안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접은 주 5회, 온라인 밴드 스터디 2개(시책 퀴즈, 교육관 정립)로 면접 공부에 가장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저처럼 하는 것은 면접이 약한 선생님들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통해 면접 실력을 많이 끌어올렸고 실제로 강사 피드백을 받았을때 상위권 점수와 좋은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해 작년보다 성적은 올랐으나 역시 많이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을 잘 분석하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차 이후 2차 스터디 계획 예시>

3) 수업실연 (작년 19.8, 지도안 9.7)

일 병행이면 어느 정도 수업실연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업실연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이 즐겁게 스터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 2회만 진행하였고, 지도안 스터디는 2022년도에 밴드로 진행하고 2023년엔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 쓰는 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수업실연도 역시 매 순간 영상을 찍었으며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과 스터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도안을 최대한 외워서 실연하는 것을 연습하시길 추천합니다. 기출 문제 위주로 수업해보고 그 다음에 강사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컨디션 관련

몸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오랜 임용 공부를 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비타민입니다. 2차 준비 기간에는 하루 권장량 이상의 비타민 섭취를 추천합니다. 저는 일 병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코로나, 독감 모두 유행 2023년 한 해 정말 많이 아팠었습니다. 3번의 코로나와 1번의 독감에 걸렸고 1차 시험 일주일을 남기고 또 코로나에 걸

렸었습니다. 여러 번 걸려서 많이 아프진 않았습시다만 멘탈 잡기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걸리면 쉽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터치, 침과 같은 분비물 등으로 쉽게 옮기 때문에 꼭 외부에 나가실 땐 마스크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 병행인 경우 운동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 사리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5) 멘탈 관련

해마다 친인척 분들의 장례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등.. 정말 많이 힘들었던 임고 시절을 겪었습니다. 임고하는 나이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죠.. 감정에 동요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 마음을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흔들리지 말고 필독서나 가장 약한 파트 부분을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면 책에 푹 빠지게 되고 안 좋았던 생각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새벽에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 하거나.. 매일 아침, 자기 전에 기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면 스스로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최대한 공부 생각만 하시길 추천합니다.

6) 끝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 원인 분석하세요. 왜 자꾸 틀리는지, 무슨 실수들을 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꼭 분석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시고 개선됐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합격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공부했을 때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도 불안합니다. 저도 시험장 갈 때까지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런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1교시 교육학 난이도가 어려우면 멘탈을 반드시 다잡아야 합니다. 어려우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교시 전공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학이 너무 어려웠어도 전공은 분명 잘할 수 있다고 계속 마음을 다잡아야 전공을 망치지 않습니다. 전공에 대한 준비가 잘되어 있으면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때 검토를 하면서 썼던 답안을 많이들 고치는데 정말 확실하지 않은 이상 고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감적으로 떠오른 답이 정답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가 잘 안될 때, 담임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해줄 말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조·종례 시간에 어떤 얘길 해주면 도움이 될지 등을 생각하면 공부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일 병행하면서 그렇게 평상시에 고민한 내용들을 조·종례 때 얘기했어요.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내용이나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감동받은 부분 등을 공유하면 아이들이 좋게 받아들여주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더라고요. 힘든 시기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응원을 받으면서 위로받고 그 힘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 반드시 잘 되실 겁니다. 파이팅입니다.